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 논문

여성 교육의 다세대간 이전과 경제성과에 미친 영향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원 혜 진

국문초록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의 활성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은 자녀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의 논문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세대 간의 교육 수준의 이전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볼 뿐 아니라 3세대에 미치는 교육비지출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서 교육수준의 다세대간 이전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이전은 2세대 간에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3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로그 공교육비와 가계소비지출 중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는 세대 간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확산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이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으며, 딸의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이동성, 교육수준, 어머니, 다세대간 이전, 경제적 성과, 교육비 지출

학 번 : 2014-22296

목 차

Ⅰ. 서론 ····· 1

Ⅱ. 선행연구 검토 ····· 3

Ⅲ. 연구방법 ····· 5
1. 데이터 및 변수 설명 ····· 5
2. 분석 모형 ····· 9
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수준 ····· 9
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경제활동 ····· 10
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손자, 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 11

Ⅳ. 분석 결과 ····· 12
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 12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경제활동관련변수간의 관계 ····· 16
3.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손자, 손녀의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21

Ⅴ. 강건성 분석 ····· 26

Ⅵ. 결론 ····· 29

참고문헌 ····· 33

Abstract ····· 36

표 목 차

[표 1] 기초 통계량 (N=2,744) ····· 6

[표 2] G1의 교육수준과 G2, G3의 교육관련 변수간의 관계 ····· 8

[표 3]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교육수준간의 관계 ····· 13

[표 4]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경제활동참가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 ···· 18

[표 5] 할머니의 교육수준과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비지출간의 관계 ····· 23

[표 6]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변수 및 손자 손녀의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Klowf 2012, 전연령대) ····· 27

[표 7]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변수 및 손자 손녀의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Klowf 2007, 30～40대) ····· 28

Ⅰ. 서론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및 부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개인의 노력을 통해 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임을 뜻하며 이동성이 작은 사회일수록 개인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은 주로 소득수준이나 직업, 교육수준으로 측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을 통한 소득 및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이루어져 왔음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육수준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신분의 이동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투자의 격차가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김종엽, 2003) 즉,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의 세대 간의 이동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 불평등의 척도로 활용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의 문제(Social mobility)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왔다. 경제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소득과 교육수준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의 연구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Jere R. Behrman and Mark R. Rosenweig(2002), Sacerdote(2007))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아버지의 소득과 직업, 학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머니의 영향력을 고려한 논문은 많지 않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유아기 건강 및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과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김대일, 2008),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 국내의 논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현주(1999)와 윤경희(2001)는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학업성적은 관련이 없음을 발견한 반면, 김현주・이병훈(2007)은 여학생에게서 어머니의 학력과 좋은 성적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내연구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자녀의 최종적인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을 보는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이 이전되는 지를 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이전과 관련하여서 2세대에 걸친 이동성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과연 불평등이 지속되는지, 지속된다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세대 간 이동성이 커져 사회가 평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2세대 간의 이동성을 보았던 국내의 많은 논문들과 달리 3세대를 살펴봄으로써 세대를 거침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의 세대 간의 이동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의 제 4차 조사를 중심으로 제 1차 조사의 응답을 결합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3세대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딸의 최종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수준의 2세대 간 이동성을 살펴본다. 이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경제참여와 관련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3세대 간의 교육수준의 이동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학력은 딸의 교육수준 증가에 긍정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높을 것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촉망받는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딸 뿐 아니라 딸의 자녀 즉, 손자 손녀의 교육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설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최종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의 비교적 고학력집단에서 뚜렷하게 딸의 교육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세대 간의 교육수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설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는 딸의 경제성과에는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가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성취에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는 딸의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하남・김기헌(2000), 여유진(2008)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세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손자손녀의 공교육비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의 증가가 교육성취로 이어지는 경우에 3세대 간에도 교육수준의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기반을 둔 사교육비의 비중의 감소가 세대 간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확산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 본인의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다세대간 이동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Blau and Duncan(1967)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교육기회가 평등한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그러한 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동성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회가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과 사회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실에서는 세대 간 계층이동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세대간 이동성이 낮은 사회의 경우 부모의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대 간 교육수준의 이동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세대 간의 교육수준의 이동성을 연구한 외국의 논문 중 Behrman and Rosenzweig(2002)는 미네소타의 쌍생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수준이 다른 일란성 쌍생아 자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였다. OLS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쌍생아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하는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효과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교육효과는 OLS와 유사하게 남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acerdote(2007)의 경우는 입양아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해외의 논문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의 미비로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교육수준의 이동성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종범・전승

훈(2008)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으로 연결되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교육수준은 또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의 이전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방하남・김기헌(2000)은 앞서 언급한 Blau and Duncan(1967)의 기본 모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Blau and Duncan(1967)와 동일하게 아버지 학력은 자녀의 노동시장 지위 획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유진(2008)은 제 1차 복지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의 아버지의 학력, 소득수준, 직업에 대한 회고적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부모의 특성과 응답자의 소득 및 학력변수를 이용하여 대응분석과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위의 세습이 이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고 특히 지위의 양 극단에서 지위의 대물림이 강하게 나타났다. 경로 분석결과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조우현(2004)의 경우 방하남・김기헌(2000)과 동일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직업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방하남・김기헌(2000)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최필선・민인식(2015)은 회고적 데이터가 아닌 한국교육고용패널(KEEP)를 통해 부모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 간 이동을 보았는데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성과가 높아지며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또한 부모세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국내에서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주로 아버지 혹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만을 설명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국내 논문은 주로 성장한 자녀의 최종교육수준이나 사회에서의 성취가 아닌 중고등학생의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이현주(1999)와 윤경희(2001)는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학업 성적 간에 관련이 없음을 발견한 반면, 김현주・이병훈(2006)은 여학생에게서 어머니의 학력과 좋은 성적의 정적 상관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내연구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자녀의 최종적인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확대와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의 증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변수 설명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생애 전반에 대한 풍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패널 조사이다. 2007년에 만 19세부터 64세의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하여 시작된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8년에 2차 조사, 2010년 3차 조사, 2012년에 4차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가구용 조사지는 가족구성의 일반특성과 함께 주거상태,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있다. 여성개인용은 결혼경험, 가사, 자녀양육, 건강 등 총 26개의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2012년도 4차 조사의 개인용 조사, 가구용 조사, 그리고 2007년도의 개인용 조사의 일부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2012년도의 개인용 조사에서는 패널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및 일자리관련 문항과 응답자의 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일자리관련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가구용 조사는 3세대의 교육수준 이전을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가구 소비지출항목과 가구원의 정보 중 자녀에 관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2007년의 개인용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5세 때의 가정환경을 묻는 회고적 문항이 있어 이 중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군, 경제적인 가정환경과 형제에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30, 40대의 기혼 여성이다. 30, 40대로 연령대를 한정지은 것은 30대 이상의 경우에 대부분 교육과정이 종료되어 패널상의 학력을 최종학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50대 이상의 경우는 여성의 진학 및 사회진출이 굉장히 한정적이기에 최근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1) 여성가족패널 User's Guide로부터 발췌하였음.

[표 1] 기초 통계량 (N=2,744)

		평균	표준오차	비고
종속변수				
1. 딸의 교육연수		13.598	2.075	
2. 노동성과 변수				
	직장경험유무	0.941	0.236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한 경험 있으면 1, 없으면 0
	직장생활시작연령	19.520	5.713	직장생활을 시작한 연령
	LFP	0.477	0.499	2012년 패널조사 응답시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1, 아니면 0
	관리직, 전문직	0.229	0.420	딸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이면 1, 아니면 0
	출산자녀수	1.996	0.695	실제 출산한 자녀의 수
	기대자녀수	2.035	0.640	평생에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수
3.자녀의 교육수준				
	교육비 비중	1.560	0.937	가구당 월별 소비지출 중 자녀 한아이당 지출되는 교육비의 비중, 미혼성인자녀까지 포함.
	공교육비 비중	0.429	0.639	가구당 월별 소비지출 중 자녀 한아이당 지출되는 공교육비의 비중, 미혼성인자녀까지 포함.
	사교육비 비중	1.130	0.897	가구당 월별 소비지출 중 자녀 한아이당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비중, 미혼성인자녀까지 포함.
	로그 전체교육비	3.476	0.783	응답자 자녀 한아이당 지출되는 평균 교육비에 로그를 취한 값
	로그공교육비	2.061	1.114	응답자 자녀 한아이당 지출되는 평균 공교육비에 로그를 취한 값
	로그사교육비	3.228	0.819	응답자 자녀 한아이당 지출되는 평균 사교육비에 로그를 취한 값
주요 설명변수				
어머니 교육연수		7.3491	3.4695	
아버지 교육연수		8.952	3.805	
응답자연령		40.634	4.911	
응답자남편변수				
	교육연수	14.174	2.3606	
	연령	43.422	5.593	
	로그소득	5.720	0.471	
	어머니의 직업			
	관리직, 전문직	0.015	0.121	무직'을 기준변수로 하여 더미변수화
	사무직	0.009	0.097	
	서비스직,판매직	0.226	0.419	
	농업	0.293	0.455	
	기술직, 생산직	0.020	0.141	
	단순노무직	0.044	0.205	
	군인	0.001	0.027	
	아버지의 직업			
	관리직, 전문직	0.097	0.295	무직'을 기준변수로 하여 더미변수화
	사무직	0.115	0.319	
	서비스직,판매직	0.179	0.383	
	농업	0.409	0.492	
	기술직, 생산직	0.124	0.329	
	단순노무직	0.046	0.210	
	군인	0.009	0.095	
응답자 15세때 환경				
	경제적 환경	2.908	0.793	15세 무렵의 성장배경을 묻는 문항중 경제적인 형편을 묻는 응답으로 1에서 5단계로 응답. 숫자가커질수록유복한환경을나타내도록코딩
	형제수	4.138	1.586	
	자매비율	0.618	0.202	
	출생순서	2.707	1.628	

50대 이상은 제외하였다. 또한 기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본 연구에서는 3세대에 걸친 교육수준의 이전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30, 40대 여성 중에서도 결혼을 한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다. 본 분석에 활용된 전체 샘플 수는 2,744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응답자의 자녀의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3가지에 대해서 보고 있다. 각각의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에 대해 살펴보면 딸의 교육연수의 경우 평균이 13.598년으로 분석대상인 30~40대 여성의 평균 학력이 고졸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성과 관련한 변수는 총 6가지로 직장경험유무와 LFP, 관리직・전문직의 경우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기대자녀수의 경우는 분석대상이 30~40대 여성이므로 출산이 완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패널에서 49세 이하의 여성에게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묻고 있는 문항을 활용하여 '기대자녀수'라는 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서 본 변수는 교육비 지출금액으로 가구용 조사의 공교육비 지출금액, 사교육비 지출금액, 그리고 전체 교육비 지출금액을 미혼인 성인자녀까지를 포함한 자녀의 수로 나누어 한 자녀당 평균 지출금액을 산출하였다. 가계지출 중 한 자녀당 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한 자녀당 지출되는 평균 금액에 로그를 취한 값을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최종학력을 더미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교육연수로 환산한 값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단계별로 보는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단계별로, 교육연수로 보는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교육연수로 통제하였다. 부모의 직업의 경우는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판매직, 농업, 기술직/생산직, 단순노무직, 군인, 무직의 8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무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으며, 15세 때의 경제적 형편은 패널의 문항 중 15세 무렵의 경제적 형편을 5단계(아주 잘 사는 편이었다 ~ 아주 어려운편이었다.)로 응답하고 있는 문항을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것으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김경근(2005), 김대일(2008), 최필선, 민인식(2015), Fischer et al.(1996)등의 많은 논문에서 학생의 거주하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교육적 성취가 달라짐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15세 무렵의 거주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단위, 해외로 구분하여 통제해 주었다. 또한 가정 내의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줄 수

[표 2] G1의 교육수준과 G2, G3의 교육관련 변수간의 관계

		G1			
		아버지		어머니	
		고졸이하	대학이상	고졸이하	대학이상
G2	평균교육연수(단위: 년)	13.4	15.4	13.5	15.9
	(표준편차)	(2.024)	(1.725)	(2.050)	(1.617)
G3	총교육비 (단위:만원)	33.0	48.2	33.8	54.5
	공교육비	9.6	13.1	9.8	16.5
	사교육비	23.4	35.2	24.1	38.1

주: G1은 패널 응답자의 부모세대, G2는 패널 응답자, G3는 패널 응답자의 자녀세대를 의미함. G3의 교육비는 한 자녀당 지출되는 교육비를 의미. G1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졸이하와 대학이상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G2의 평균교육연수와 G3에 대한 월평균 교육비지출의 정도를 확인. G2의 평균교육연수의 단위는 연도이며 G3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단위는 만원임

있는 형제의 수, 자매의 비율[2], 출생순서도 향후의 교육성취 및 사회에서의 성취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통제하였다. 이렇듯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변수들을 통제해줌으로써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2]는 [표 1]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로 나타낸 것이다. 패널 응답자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G1로, 응답자를 G2, 응답자의 자녀를 G3로 나타내어 G1의 교육수준과 G2의 교육수준, G3에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를 보여준다. G1 중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경우 G2의 평균 교육연수가 13.4년인데 반해 대학이상인 경우는 15.4년으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는 아버지를 둔 여성의 경우 약 2년가량 교육연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딸의 교육연수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는 평균 13.5년이고 대학이상인 경우는 15.9년으로 딸의 교육연수는 2.4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모님의 교육수준과 딸의 교육수준 간에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3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G1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G1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 한아이당 지출되는 총교육비는 33.0만원인데 반해 대학이상인 경우 48.2만원으로 약 15.2만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총 교육비 중에서도

2) Kristin F. Butcher and Anne Case(1994)에 의하면 여성의 학력과 경제성과는 전체 형제 중에서도 자매의 비율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자매비율 또한 통제해 주었다.

공교육비의 경우는 9.6만원과 13.1만원으로 대학이상의 경우에 평균 3.5만원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경우는 23.4만원과 35.2만원으로 11.8만원 더 많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G3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총교육비는 33.8만원, 대학이상인 경우는 54.5만원으로 약20.7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의 경우는 고졸이하의 경우는 9.8만원 대학이상의 경우는 16.5만원으로 6.7만 원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는 24.1만원과 38.1만원으로 G1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에 14만원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달라짐에 따른 총교육비의 증가분에서 공교육비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8%인데 반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교육비의 증가비중은 약 32.4%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차이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전체 교육비 지출의 증가 중에 공교육비가 증가하는 비중이 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공교육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G2의 교육수준과 G3에 대한 교육비 지출 모두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30~40대의 여성의 부모의 연령은 50~70대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여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인 1970년의 남성의 대학진학률은 24.2%, 여성 대학진학률은 25.3%, 1980년은 각각 23.9%, 22.2%로 남녀 간의 대학진학률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후대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분석 모형

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수준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edu_i = \beta_0 + \beta_1 medu_i + \beta_2 X_i + \epsilon_i \qquad (1)$$

종속변수 edu_i는 딸의 교육연수로 두었다. 주요 설명변수인 $medu_i$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중졸이하를 기준으로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의 단계적인 교육수준별로 더미변수를 구성한 것을 기본분석(Panel A)으로 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교육연수로 환산하여(Panel B)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X_i는 딸의 교육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로서 응답자의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15세 때의 경제적 형편, 형제자매의 수, 자매의 비율[3], 출생순서 및 15세 무렵 거주하던 지역을 포함한다.

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경제활동

본 논문에서 두 번째로 분석해 볼 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경제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기본적인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medu_i + \beta_2 X_i + \beta_3 H_i + \epsilon_i \qquad (2)$$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교육수준간의 관계를 보기위한 기본 모형과 유사하며 단지 X_i에 응답자 본인(딸)의 교육연수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혼여성의 경우의 경제활동에는 남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이므로 남편의 연령, 로그소득 및 교육수준(H_i)을 고려해 주었다.[4] 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의 유무,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연령, 현재 경제활동 참여여부(LFP), 직업선택,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보았다. 직장생활 경험의 경우 첫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두어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의 유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직장생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연령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LFP의 경우는 2012년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

3) Kristin F. Butcher and Anne Case(1994)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성과에는 형제 중 여성형제의 비중이 큰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어 자매의 비율을 고려하였다.

4) LFP, 출산한 아이수, 기대 아이수의 경우는 남편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으나 직업선택과 처음 직장을 갖는 연령의 경우는 결혼이전에 결정될 확률이 높으므로 남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았다.

으로 두어 30~40대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인하였다. 직업선택의 경우는 딸의 일자리의 종류가 관리직과 전문직인 경우, 즉 딸이 보다 안정적이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를 1로 두고 그 외의 경우를 0으로 두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변수로 출산하는 아이의 수를 본 것은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을 기점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5]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경력단절이후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과 경제활동참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 출산한 자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분석대상자의 연령이 30, 40대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응답 시점에서 실제 출산한 자녀수는 완결된 출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49세 이하의 응답자들에 대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아이 수를 묻고 있는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여 평생의 '기대 자녀수'라는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출산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손자, 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손자, 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medu_i + \beta_2 X_i + \beta_3 H_i + \beta_4 C_i + \epsilon_i \qquad (3)$$

3세대에 걸친 교육수준의 이동성을 보는 이유는 교육수준의 이전이 세대를 거침에 따라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의 작용과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의 이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를 봄으로써 세대 간 이동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응답자의 어머니(G1)의 교육수준이 손자 손녀의 최종학력이나 교육적 성취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나 여성가족패널의 경우 손자, 손녀(응답자의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묻고 있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Hedges, Laine and Greenwald(1994; 1996), 우명숙・김지하(2013)에 의하면 학생 일인당의 교육비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

5) 통계청의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2014년 4월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956만 1천명)중 비취업 여성은 389만 4천명이며 이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97만 7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7%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직접적인 손자, 손녀의 학업성취대신에 손자, 손녀 일인당 지출되는 교육비 지출을 학업성취의 대리변수로 보고 분석을 수행한다.

종속변수는 한 자녀당의 평균 교육비의 절댓값에 로그를 취한 값과 월별 가구의 총 소비지출금액 중에 한 자녀당 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때, 교육비를 미취학, 취학, 미혼인 성인자녀까지를 포함한 자녀의 수로 나누어 한 자녀당의 평균 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각을 전체 교육비와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은 기본적으로 회귀식 (2)와 유사하나 추가적으로 자녀의 평균연령과 자녀의 성비를 C_i로 통제해 주었다.

Ⅳ. 분석 결과

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1)~(5)열까지는 주요설명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시켜가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1)열의 경우 기본적인 응답자의 개인변수만을 통제해 준 상태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Panel A를 통해 학력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보는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의 경우 0.968년이 증가하고 전문대졸인 경우는 2.254년이 증가하고 대졸이상인 경우는 약 2.380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딸의 교육연수는 0.1774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딸의 교육연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Solon(1992)의 단년도 소득탄력성 0.2~0.3과 비교하였을 때 작은 수치이며,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세대간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김봉근 외(2012)의 OLS결과인 0.213, 교육수준을 Ⅳ로 활용하여 OLS분석을 한 결과인 0.286보다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통제한 변수와 모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득의 세대간 이동성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이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열은 아버지의 교육변수를 통제한 결과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연수를 통제

[표 3]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교육수준간의 관계

		(1)	(2)	(3)	(4)	(5)	(6)	(7)	(8)
VARIABLES		딸의 교육연수							사위의 교육연수
		기본모형	+아버지 교육수준	+부모 직업	+경제적 환경	+거주 지역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아버지학력 대학이상	
Panel A : 어머니의 단계별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어머니교육수준	고졸	0.968***	0.209*	0.128	0.115	0.090	0.026	0.180	-0.166
		(0.098)	(0.114)	(0.114)	(0.113)	(0.113)	(0.125)	(0.262)	(0.108)
	전문대졸	2.254***	0.940**	1.139***	1.148***	1.106***	-0.229	1.040**	-0.650
		(0.427)	(0.432)	(0.429)	(0.426)	(0.425)	(1.052)	(0.495)	(0.406)
	대졸이상	2.380***	0.870***	0.762***	0.682**	0.661**	2.001**	0.706**	-0.151
		(0.233)	(0.266)	(0.273)	(0.271)	(0.271)	(0.884)	(0.332)	(0.259)
아버지교육수준	고졸		0.819***	0.634***	0.559***	0.535***	0.541***		0.200**
			(0.095)	(0.098)	(0.098)	(0.098)	(0.102)		(0.094)
	전문대졸		1.196***	0.848***	0.701**	0.704**			0.852***
			(0.321)	(0.323)	(0.321)	(0.321)			(0.306)
	대졸이상		1.883***	1.417***	1.260***	1.236***		0.841**	0.338**
			(0.162)	(0.170)	(0.171)	(0.171)		(0.337)	(0.164)
어머니직업	관리직/전문직			-0.470*	-0.523*	-0.527*	-0.725**	-0.352	0.091
				(0.273)	(0.271)	(0.270)	(0.369)	(0.365)	(0.258)
	사무직			-0.090	-0.088	-0.088	-0.700	1.806**	-0.201
				(0.460)	(0.457)	(0.456)	(0.519)	(0.874)	(0.435)
	서비스직/판매직			0.070	0.075	0.082	0.070	0.216	-0.068
				(0.105)	(0.104)	(0.105)	(0.110)	(0.336)	(0.100)
	농업			-0.058	-0.037	0.042	0.075	-0.352	-0.091
				(0.123)	(0.122)	(0.125)	(0.128)	(0.752)	(0.120)
	기술직/생산직			-0.412	-0.431*	-0.396	-0.420	0.728	-0.204
				(0.251)	(0.249)	(0.252)	(0.257)	(1.365)	(0.240)
	단순노무직			-0.846***	-0.741***	-0.717***	-0.777***	0.414	-0.114
				(0.191)	(0.190)	(0.190)	(0.200)	(0.667)	(0.182)
	군인			0.297	0.357	0.414	3.328***	-4.175***	-0.160
				(0.760)	(0.754)	(0.754)	(1.005)	(1.305)	(0.718)
아버지직업	관리직/전문직			1.141***	1.001***	0.958***	0.951***	-0.151	-0.106
				(0.284)	(0.282)	(0.282)	(0.300)	(0.965)	(0.269)
	사무직			0.781***	0.651**	0.631**	0.728**	-0.385	-0.081
				(0.280)	(0.278)	(0.278)	(0.294)	(0.958)	(0.265)
	서비스직/판매직			0.427	0.325	0.294	0.398	-1.133	-0.058
				(0.263)	(0.261)	(0.261)	(0.271)	(0.924)	(0.249)
	농업			0.238	0.156	0.171	0.208	-0.943	-0.166
				(0.268)	(0.266)	(0.266)	(0.276)	(1.015)	(0.254)
	기술직/생산직			0.180	0.105	0.079	0.117	-0.103	-0.000
				(0.277)	(0.275)	(0.275)	(0.285)	(1.060)	(0.262)
	단순노무직			0.207	0.217	0.171	0.269		-0.579**
				(0.310)	(0.307)	(0.308)	(0.316)		(0.293)
	군인			1.525***	1.400***	1.395***	1.829***	1.423	-0.345
				(0.485)	(0.481)	(0.481)	(0.540)	(1.286)	(0.459)
경제적 환경					0.322***	0.325***	0.361***	0.032	0.117**
					(0.047)	(0.047)	(0.051)	(0.129)	(0.046)
지역더미	대도시					0.273***	0.315***	0.300	0.130
						(0.100)	(0.105)	(0.357)	(0.095)
	중소도시					0.216**	0.190*	0.720*	0.254***
						(0.100)	(0.104)	(0.376)	(0.095)
	해외					-0.103	-0.069		0.019
						(0.514)	(0.516)		(0.490)
응답자연령		-0.026***	-0.033***	-0.039***	-0.039***	-0.038***	-0.043***	0.003	0.010
		(0.008)	(0.008)	(0.007)	(0.007)	(0.007)	(0.008)	(0.024)	(0.007)
응답자의		-0.155***	-0.122***	-0.112***	-0.108***	-0.098***	-0.088**	-0.195*	0.059*

형제수	(0.036)	(0.035)	(0.035)	(0.035)	(0.035)	(0.037)	(0.108)	(0.033)
응답자의 자매비율	0.325* (0.185)	0.195 (0.181)	0.101 (0.180)	0.091 (0.179)	0.088 (0.179)	0.076 (0.191)	0.216 (0.489)	-0.061 (0.170)
출생순서	0.013 (0.034)	0.017 (0.033)	0.031 (0.032)	0.027 (0.032)	0.027 (0.032)	0.025 (0.034)	-0.101 (0.101)	-0.054* (0.031)
응답자 교육연수								0.717*** (0.018)
Constant	14.931*** (0.324)	14.919*** (0.318)	14.862*** (0.418)	14.038*** (0.432)	13.819*** (0.439)	13.820*** (0.462)	14.944*** (1.498)	3.677*** (0.489)
Observations	2,744	2,744	2,744	2,744	2,744	2,491	253	2,744
R-squared	0.112	0.161	0.189	0.203	0.205	0.146	0.265	0.447
Panel B : 어머니의 교육연수								
어머니 교육연수	0.177*** (0.011)	0.050*** (0.015)	0.038** (0.015)	0.033** (0.015)	0.029* (0.015)	0.014 (0.017)	0.091** (0.039)	0.013 (0.015)
Observations	2,744	2,744	2,744	2,744	2,744	2,491	253	2,744
R-squared	0.123	0.170	0.197	0.207	0.209	0.154	0.255	0.447

주: (1)에서 (7)열의 종속변수는 딸의 교육연수이며, (1)에서 ()열까지는 회귀식 (1)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1)의 기본 모형의 경우 주요 설명변수인 어머니의 교육수준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2)부터 (5)열까지는 단계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연수, 부모의 직업, 15세 무렵의 가정환경, 15세 무렵 거주했던 지역까지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경우의 추정 결과임. Panel A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기준으로 단계별 교육수준을 고졸, 전문대졸, 대학진학이상의 더미변수로, Panel B에서는 주요 설명변수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6), (7)열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력을 고졸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5)의 최종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회귀결과임. (8)열의 종속변수는 사위의 교육연수. 어머니와 아버지 직업의 기준변수는 무직임.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10%, 5%,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하는 경우에 (1)에 비해 계수의 크기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 계수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교육수준 별로는 고졸에서 유의수준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문대졸에서 대졸에서 보다 큰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어머니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는 비록 약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였음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교육연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열은 (2)에 부모님의 직업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Panel A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고졸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의 경우 (2)에 비해 오히려 계수값과 유의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졸이상인 경우에서도 여전히 1%유의수준에서 0.762년 교육연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였을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전문대 졸인 경우

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B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계수값은 감소하지만 유의수준 5%수준에서 딸의 교육연수는 0.038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는 가정환경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경제적인 가정환경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Panel A의 경우 전문대졸의 경우 (3)열보다 오히려 계수의 값이 커졌으며 대졸이상의 경우에 여전히 유의한 수준에서 딸의 교육연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열의 Panel B의 결과를 안종범・전승훈(2008)의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부모의 교육수준의 결과와 비교해보면[6] 부모가구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이 0.0295이나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에 반해, 본 분석에서는 Panel B를 통해 유의수준 5%에서 0.0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범・전승훈(2008)의 연구 결과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이전이 뚜렷하고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열의 경우 청소년기에 거주한 지역의 크기를 통제한 결과를 보여준다. Panel A의 경우 계수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학력에서 딸의 교육연수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anel B를 통해 비록 유의수준은 감소하였으나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여전히 딸의 교육연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딸의 교육수준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에서 (5)열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딸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대졸이상에서 딸의 교육연수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으며, 대졸이상의 경우보다 전문대졸인 경우에 딸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고졸과 대졸이상의 경우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전문대졸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7)열은 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와 대졸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나타내고 있다. (6)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무려 약 2년

6) 모형설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제하고 있는 변수들이 가장 유사하여 비교 가능

이상 딸의 교육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열의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5%유의수준에서 딸의 교육연수 또한 0.091년 증가하였다. (7)의 결과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 또한 높을 가능성이 높아 대졸이상에서 (5)의 값에 비해 다소 큰 값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딸의 교육수준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3]의 (8)열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위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고 있다. 지역까지 고려한 최종 모형에 종속변수만을 딸의 교육연수에서 사위의 교육연수로 바꾸고 설명변수에 딸의 교육연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딸의 결혼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부모님의 영향력이 작용할 터인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딸의 세대에서 새롭게 이루는 가정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비록 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가의 부모님의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딸을 통한 어머니의 영향력의 세대 간 이동을 보고자 함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Panel A, B를 통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위의 교육연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사위의 교육연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딸의 결혼에 있어서 사위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 본인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수록 유의수준 1%에서 사위의 교육연수를 0.717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딸의 교육수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딸의 교육수준이 사위의 교육수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딸의 세대에서도 assortative mating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경제활동관련변수간의 관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소득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리변수로 보고 이러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 또한 딸의 직업 선택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앞에서의 분석과 동일하게 Panel A에서는 설명변수를 어머니의 단계별 교육수준, Panel B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연수로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1)열의 종속변수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의 유무이다. 2012년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인 더미변수로 두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anel A, B 모두에서 방향은 비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값은 도출되지 않았다.

(2)열의 종속변수는 딸이 처음으로 직업을 갖는 연령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딸이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과의 관계를 본 것으로 계수 값이 양수일수록 계수 값만큼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분석의 대상은 지금까지 직장경험을 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총 샘플수는 2,581명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Panel A에서 교육단계별로 보았을 때는 어머니가 중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고졸인 경우 1% 유의수준에서 0.526년 더 늦게 직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0.525년 사회에 나가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졸이상의 경우는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연령이 다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Panel B에서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수록 1%유의수준에서 딸은 0.071년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딸의 첫 사회진출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은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딸의 교육연수 또한 증가하므로 교육수준이 증가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이 늦춰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열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인 30, 40대인 딸의 2012년도 현재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두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 남편의 영향과 아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3)열의 2012년도 현재 경제활동참가여부는 남편변수(남편의 연령, 교육수준과 로그소득)과 미취학자녀의 수 또한 통제하였다. Panel A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유의미한 수준으로 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LFP가 증가했던 (1)의 결과와 크게 다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응답자의 어머니 세대의 경우 학력의 높음이 사회에서의 성취를 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님 세대에 학력이 높은 부모간에결

[표4]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경제활동참가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

		(1)	(2)	(3)	(4)	(5)	(6)
VARIABLES		직장생활 경험유무	직장생활 시작연령	LFP	관리직, 전문직	출산한 자녀수	기대 자녀수
Panel A : 어머니의 단계별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어머니교육수준	고졸	0.189	0.526***	-0.123	-0.101	0.009	0.009
		(0.308)	(0.160)	(0.186)	(0.314)	(0.046)	(0.041)
	전문대졸	0.130	0.525	0.222	-2.305	-0.562**	-0.391**
		(1.310)	(0.623)	(0.703)	(1.450)	(0.220)	(0.196)
	대졸이상	0.299	-0.105	-0.737*	-1.086	-0.235**	-0.191*
		(0.588)	(0.392)	(0.430)	(0.716)	(0.111)	(0.099)
아버지교육수준	고졸	-0.065	-0.027	0.139	-0.151	-0.165***	-0.108***
		(0.284)	(0.139)	(0.160)	(0.232)	(0.040)	(0.036)
	전문대졸	-0.706	0.022	0.411	1.029	-0.018	0.013
		(0.846)	(0.460)	(0.437)	(0.874)	(0.131)	(0.117)
	대졸이상	-0.808*	0.210	-0.236	0.578	-0.045	-0.016
		(0.427)	(0.247)	(0.255)	(0.484)	(0.071)	(0.063)
어머니 직업	관리직/전문직	-1.436***	0.721*	0.295	0.623	0.180	0.188*
		(0.476)	(0.413)	(0.476)	(0.904)	(0.114)	(0.101)
	사무직	1.387	-0.211	0.695	-0.166	-0.101	-0.089
		(1.038)	(0.627)	(0.512)	(0.693)	(0.196)	(0.174)
	서비스직/판매직	0.680**	0.067	0.148	-0.236	0.004	0.016
		(0.345)	(0.147)	(0.155)	(0.232)	(0.042)	(0.038)
	농업	-0.261	0.367**	-0.179	0.476*	0.033	0.041
		(0.341)	(0.177)	(0.172)	(0.283)	(0.050)	(0.044)
	기술직/생산직	-0.455	-0.228	0.722*	-0.197	-0.078	-0.014
		(0.522)	(0.355)	(0.391)	(0.460)	(0.097)	(0.086)
	단순노무직	0.517	-0.304	0.597**	0.816**	0.063	0.080
		(0.521)	(0.265)	(0.295)	(0.358)	(0.080)	(0.071)
	군인		-3.015***	0.643		-0.312	0.065
			(1.030)	(1.065)		(0.282)	(0.251)
아버지 직업	관리직/전문직	1.449**	0.370	0.044	0.677	0.053	0.032
		(0.670)	(0.401)	(0.387)	(0.545)	(0.114)	(0.101)
	사무직	1.138*	0.511	-0.102	0.941*	0.122	0.092
		(0.674)	(0.396)	(0.382)	(0.519)	(0.112)	(0.099)
	서비스직/판매직	0.487	0.300	-0.096	0.846*	0.150	0.114
		(0.582)	(0.371)	(0.347)	(0.463)	(0.104)	(0.093)
	농업	0.860	-0.139	0.205	0.225	0.122	0.148
		(0.621)	(0.378)	(0.347)	(0.468)	(0.106)	(0.094)
	기술직/생산직	1.357**	0.110	-0.233	0.951*	0.148	0.202**
		(0.657)	(0.390)	(0.366)	(0.522)	(0.110)	(0.098)
	단순노무직	0.210	-0.144	0.214	0.413	0.133	0.146
		(0.658)	(0.438)	(0.425)	(0.546)	(0.125)	(0.111)
	군인	1.266	1.270*	0.059	1.064	-0.028	0.029
		(1.226)	(0.678)	(0.595)	(1.073)	(0.193)	(0.171)
응답자 연령		-0.023	0.071***	0.036	-0.061***	-0.001	-0.010*
		(0.021)	(0.011)	(0.023)	(0.018)	(0.006)	(0.005)
응답자 교육연수		0.038	0.748***	0.195***	0.742***	-0.001	-0.005
		(0.066)	(0.028)	(0.036)	(0.057)	(0.010)	(0.009)
응답자 남편 연령				0.014		0.012**	0.007
				(0.020)		(0.005)	(0.005)
응답자 남편 교육연수				-0.056*		-0.012	-0.003
				(0.030)		(0.008)	(0.007)
응답자 남편 로그 소득				-1.156***		0.087***	0.080***
				(0.149)		(0.033)	(0.029)
미취학아동				-0.528*			
				(0.278)			
경제적 환경		-0.303**	0.098	-0.058	-0.107	-0.003	0.001
		(0.126)	(0.067)	(0.070)	(0.112)	(0.019)	(0.017)

응답자의 형제수		0.027	-0.199***	0.069	-0.120	0.028*	0.037***
		(0.113)	(0.050)	(0.053)	(0.089)	(0.015)	(0.013)
응답자 자매비율		-0.513	0.107	-0.268	0.359	-0.055	-0.116*
		(0.525)	(0.253)	(0.272)	(0.423)	(0.073)	(0.065)
응답자 출생순서		0.029	0.222***	-0.035	0.020	-0.003	-0.009
		(0.095)	(0.046)	(0.047)	(0.076)	(0.013)	(0.012)
지역더미	대도시	-0.201	0.028	-0.141	0.057	-0.033	-0.007
		(0.265)	(0.140)	(0.143)	(0.233)	(0.040)	(0.036)
	중소도시	-0.399	0.374***	-0.223	0.166	-0.038	-0.018
		(0.268)	(0.141)	(0.139)	(0.232)	(0.040)	(0.036)
	해외	-1.718**	0.408	-0.503	-0.222	0.124	0.068
		(0.724)	(0.798)	(0.696)	(0.991)	(0.199)	(0.177)
Constant		3.554***	7.177***	2.847***	-7.642***	1.045***	1.581***
		(1.361)	(0.727)	(0.995)	(1.208)	(0.253)	(0.225)
Observations		2,742	2,581	2,371	1,296	2,375	2,375
Panel B: 어머니의 교육연수							
어머니교육연수		0.008	0.071***	-0.020	-0.080**	-0.008	-0.007
		(0.039)	(0.022)	(0.022)	(0.032)	(0.006)	(0.006)
Observations		2,742	2,581	2,390	1,296	2,375	2,375

주: 각 추정식의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다. (1)경제활동에 참가한 경험의 유무, (2)직장생활을 시작한 나이, (3)LFP: 2012년도 현재 경제활동 참여 여부, (4) 딸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에 속하는 지의 여부, (5)실제 출산한 아이의 수, (6)평생동안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수 . 기본적으로 회귀식 (2)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1), (2), (4)의 경우 결혼이전에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 남편과 자녀를 통제하지 않음. (3)LFP의 경우는 남편변수와 함께 미취학자녀의 수도 고려.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10%, 5%,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혼을 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비경활인구화는 딸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비록 미혼일 때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딸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결혼 후에는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전업주부로써 자녀에 교육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딸의 교육수준 증가가 사위의 교육 수준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교육수준의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보다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생활수준 면에서의 경제적 대물림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에서 LFP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고학력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L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연구결과(김태홍, 2000; 민무숙, 2006)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열은 딸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 직종에 속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

를 0인 더미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30, 40대 기혼 여성으로 이 중 농업에 종사하는 12명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총 샘플수는 1,296명이다. 이 중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수는 421명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딸이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게 될 확률 간에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응답자 본인의 교육연수와는 유의수준 1%에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방하남・김기헌(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경제활동 참여 변수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하여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당초의 가설과는 반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열의 LFP와 (4)열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딸 본인의 교육수준과는 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작거나 부정적이지만 딸의 교육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6)열의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출산율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5)열의 분석결과는 분석대상인 30,40대 여성들이 2012년도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Panel A의 결과를 보면 전문대졸이상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인 경우 0.562명의 아이를 적게 출산하고 대졸이상인 경우는 0.235명의 아이를 덜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출산율간에도 비선형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Panel B에서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딸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으며 그 값이 굉장히 작았다. 하지만 분석대상자의 연령이 30~40대이므로 모든 출산이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의 문항 중 49세 이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수를 묻고 있는 문항을 이용하여 응답여성의 평생 동안 기대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기대자녀수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이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6)열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딸의 자녀 출산 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은 (5)열과 유사하지만 그 값은 (5)에 비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에 있어

서 계획하고 있는 기대자녀수의 경우 실제 현재 자녀수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는 딸의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손자, 손녀의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패널에는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가”를 묻는 문항이 존재한다. 이 문항에 대한 2012년도 4차 조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가 약 4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본인(응답자 여성)이 주로 결정한다’가 31.4%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라고 대답한 가구의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교육과 관련하여서 여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영향이 긍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딸 뿐 아니라 딸을 통해 손자, 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2세대 간의 교육을 매개로한 사회의 계층이동성을 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3세대에 걸친 교육의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성가족패널에 응답자의 자녀의 교육적인 성취를 묻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기에 3세대에 걸친 정확한 교육의 이동성은 보기 어려우나 교육비의 지출과 교육 성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Hedges, Laine and Greenwald(1994; 1996), 우명숙・김지하(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손자 손녀(G3)의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할머니(G1)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에 G1의 교육수준이 G3의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3)열은 월별 전체 가계소비금액 중에 한아이당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의 비중을 공교육비, 사교육비, 전체 교육비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Panel A와 Panel B는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어머니의 단계별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연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1)열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손자, 손녀 한 아이당 평균 공교육비지출이 월별 소비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Panel A의 결과를 통해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손자손녀의 공교육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을 보면 전문대졸에서 가장 크게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졸이상, 고졸의 순이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의 경우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경우에 손자손녀의 공교육비지출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손자손녀에 대한 공교육비 비중간에는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영향과 비교하였을 때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와는 대조적으로 전문대졸에서 뚜렷하게 공교육비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열은 사교육비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전문대졸에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하는 경우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에도 단계별로 일정한 선형의 관계가 아닌 비선형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전체적으로 손자손녀의 사교육비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특히 대졸이상에서 뚜렷하게 손자손녀에 대한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의 비중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는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열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친 전체 교육비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결과이다. 고졸에서는 사교육비중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교육비의 비중도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공교육 비중을 증가시켰으나 사교육 비중도 비슷한 정도로 감소시켜 전체교육비의 비중 증가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교육비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에는 딸의 가구 월가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감소시켜 그 결과 전체 교육비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사교육비의 비중을 증가시켜 전체 교육비의 비중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6)열은 (1)~(3)에서 행한 분석을 종속변수를 교육비 지출비중에서 절대적인 교육비의 지출금액을 로그 변환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즉, 한아이당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의 절대적인 값에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보았다. (4)열을 통해 공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영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전문

[표 5] 할머니의 교육수준과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비지출간의 관계

		(1)	(2)	(3)	(4)	(5)	(6)	(7)
VARIABLES		가계소비 중 한아이당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한아이당 교육비 지출금액			사교육비/공교육비
		공교육	사교육	전체	공교육	사교육	전체	
Panel A : 어머니의 단계별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어머니교육수준	고졸	0.080**	-0.273***	-0.192***	0.287***	-0.178***	-0.091*	-3.499***
		(0.041)	(0.063)	(0.069)	(0.073)	(0.058)	(0.050)	(1.046)
	전문대졸	0.427*	-0.074	0.353	1.090***	-0.127	0.324	-10.489*
		(0.236)	(0.368)	(0.399)	(0.397)	(0.315)	(0.280)	(5.672)
	대졸이상	0.284***	-0.278*	0.006	0.404**	-0.118	0.048	-7.563***
		(0.097)	(0.151)	(0.164)	(0.169)	(0.140)	(0.118)	(2.405)
아버지교육수준	고졸	-0.027	0.105*	0.079	-0.140**	0.107**	0.073*	1.218
		(0.035)	(0.055)	(0.059)	(0.062)	(0.051)	(0.043)	(0.879)
	전문대졸	-0.400***	0.233	-0.167	-0.428**	0.344**	0.058	2.133
		(0.112)	(0.174)	(0.189)	(0.196)	(0.169)	(0.143)	(2.801)
	대졸이상	-0.083	0.395***	0.312***	-0.318***	0.338***	0.183**	9.076***
		(0.060)	(0.093)	(0.101)	-0.103	(0.084)	(0.072)	(1.470)
어머니 직업	관리직/전문직	0.026	-0.118	-0.092	0.014	0.310**	0.079	-1.640
		(0.094)	(0.146)	(0.158)	(0.151)	(0.146)	(0.118)	(2.155)
	사무직	0.008	0.068	0.076	-0.174	0.035	0.009	0.777
		(0.208)	(0.323)	(0.350)	(0.300)	(0.279)	(0.246)	(4.283)
	서비스직/판매직	-0.052	-0.099*	-0.150**	-0.058	-0.065	-0.118***	0.468
		(0.037)	(0.058)	(0.062)	(0.065)	(0.053)	(0.045)	(0.921)
	농업	-0.003	-0.088	-0.091	-0.064	-0.017	-0.063	1.355
		(0.042)	(0.066)	(0.071)	(0.068)	(0.061)	(0.051)	(0.976)
	기술직/생산직	0.093	-0.216	-0.123	0.162	-0.049	-0.079	-1.944
		(0.088)	(0.136)	(0.148)	(0.171)	(0.130)	(0.109)	(2.436)
	군인	0.062	-0.006	0.056	0.085	0.153	0.065	-1.632
		(0.067)	(0.104)	(0.113)	(0.117)	(0.096)	(0.080)	(1.664)
	무직	-0.310	0.337	0.027	-0.066	0.226	-0.087	-4.142
		(0.297)	(0.463)	(0.502)	(0.423)	(0.398)	(0.352)	(6.031)
아버지 직업	관리직/전문직	-0.026	-0.274*	-0.300*	0.017	-0.023	-0.027	2.755
		(0.097)	(0.151)	(0.164)	(0.164)	(0.139)	(0.119)	(2.345)
	사무직	0.192**	-0.419***	-0.227	0.303*	-0.093	0.016	-0.455
		(0.095)	(0.148)	(0.160)	(0.158)	(0.136)	(0.116)	(2.248)
	서비스직/판매직	0.093	-0.304**	-0.210	0.174	-0.048	0.009	-0.592
		(0.088)	(0.137)	(0.149)	(0.145)	(0.125)	(0.107)	(2.075)
	농업	0.093	-0.477***	-0.384**	0.117	-0.193	-0.098	-0.999
		(0.090)	(0.139)	(0.151)	(0.146)	(0.128)	(0.109)	(2.082)
	기술직/생산직	0.093	-0.377***	-0.284*	0.088	-0.211	-0.080	0.010
		(0.093)	(0.145)	(0.158)	(0.155)	(0.134)	(0.114)	(2.216)
	군인	-0.019	-0.356**	-0.374**	0.093	-0.282*	-0.127	0.037
		(0.104)	(0.163)	(0.176)	(0.177)	(0.148)	(0.127)	(2.533)
	무직	0.763***	-0.890***	-0.127	0.562**	-0.462*	-0.043	-3.896
		(0.170)	(0.265)	(0.287)	(0.263)	(0.250)	(0.203)	(3.754)
응답자연령		0.011**	0.001	0.012	-0.001	0.007	0.011	0.167
		(0.006)	(0.009)	(0.009)	(0.010)	(0.008)	(0.007)	(0.140)
응답자교육연수		0.016*	0.025*	0.040***	0.022	0.029**	0.031***	0.375*
		(0.009)	(0.013)	(0.014)	(0.015)	(0.013)	(0.011)	(0.208)
응답자남편연령		0.010**	-0.013*	-0.002	0.032***	-0.007	0.003	-0.267**
		(0.005)	(0.007)	(0.008)	(0.008)	(0.007)	(0.006)	(0.118)
응답자남편교육연수		0.000	0.019*	0.019	0.021*	0.027**	0.024***	-0.024
		(0.007)	(0.011)	(0.012)	(0.012)	(0.011)	(0.009)	(0.175)
로그응답자남편소득		-0.027	0.217***	0.190***	0.172***	0.472***	0.504***	2.553***
		(0.028)	(0.043)	(0.047)	(0.046)	(0.041)	(0.034)	(0.651)
자녀의 평균연령		0.048***	-0.036***	0.013**	0.158***	-0.008	0.025***	-0.856***
		(0.004)	(0.006)	(0.006)	(0.008)	(0.006)	(0.005)	(0.112)
자녀의 남자형제비율		-0.031	0.023	-0.008	-0.001	0.038	-0.001	0.092
		(0.035)	(0.054)	(0.059)	(0.061)	(0.051)	(0.043)	(0.869)

경제적 환경	0.024 (0.016)	-0.008 (0.025)	0.016 (0.028)	0.041 (0.028)	-0.025 (0.024)	-0.004 (0.020)	-0.577 (0.397)
응답자의 형제수	0.035*** (0.012)	-0.015 (0.019)	0.020 (0.020)	0.008 (0.021)	-0.028 (0.018)	0.003 (0.015)	-0.234 (0.294)
응답자의 자매비율	-0.076 (0.063)	0.282*** (0.098)	0.206* (0.106)	-0.088 (0.110)	0.213** (0.091)	0.124 (0.077)	-0.327 (1.564)
응답자 출생순서	0.003 (0.011)	0.013 (0.017)	0.016 (0.019)	0.012 (0.018)	0.018 (0.016)	0.017 (0.013)	0.258 (0.261)
Constant	-1.408*** (0.232)	0.590 (0.362)	-0.817** (0.393)	-3.319*** (0.404)	-0.013 (0.337)	-1.080*** (0.286)	6.515 (5.772)
Observations	2,092	2,092	2,092	1,591	1,796	2,005	1,591
R-squared	0.321	0.151	0.086	0.510	0.180	0.260	0.167
Panel B : 어머니의 교육연수							
어머니교육연수	0.008 (0.005)	-0.011 (0.008)	-0.002 (0.009)	0.025*** (0.009)	-0.011 (0.008)	-0.001 (0.006)	-0.197 (0.125)
Observations	2,092	2,092	2,092	1,591	1,796	2,005	1,591
R-squared	0.314	0.141	0.077	0.506	0.173	0.256	0.148

주: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1)~(3)은 응답자 가구의 월별 총 지출중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4)~(6)은 교육비의 지출금액에 로그를 취한 값임. 로그 소득이 0이하인 경우는 0으로 환산하였음. 각각 전체 교육비 지출(비중), 공교육비 지출(비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의 순서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7)은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나눈 값으로 공교육비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을 의미. Panel A는 주요 설명변수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Panel B에서는 단계별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함.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10%, 5%,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대졸에서의 공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Panel B를 통해서도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증가하는 경우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는 로그공교육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의 로그 사교육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에 유의수준 1%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6)은 로그 전체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를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에 공교육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하는 정도는 전문대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열의 전체 소비지출 중에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율, (4)~(6)의 절대적인 교육비의 지출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G1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G3의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 중 공교육비의 비중 및 지출을 증가시키며 사교육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수준 별로는 고졸에서 사교육의 감

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교육비의 비중과 지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에서는 공교육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수의 크기는 대졸이상의 경우보다도 전문대졸에서 더 크게 나타나 G1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에는 비선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교육은 증가시키고 사교육은 감소시키는데 반해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공교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공교육비대비 사교육비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대적인 사교육비의 증가에 G1의 교육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7)열에 제시되어있다. Panel A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교육수준에서 공교육비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고졸과 대졸이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로 비교하면 이번에도 전문대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이상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G1의 교육수준은 딸의 자녀인 외손자손녀에 대한 공교육비지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사교육비보다 공교육비의 지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물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에서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전문대졸인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손자손녀의 공교육비 지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청소년기에는 사교육이 지금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을 시기이므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규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딸에게 영향을 주어 사교육보다는 공교육비의 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와 비슷한 시기를 보낸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는 반대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성취로 직결되지 않아 소득면에서 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사교육비보다 공교육비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

공교육의 경우 교육의 평등성을 강화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가정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장수명・한치록, 2011). 그러므로 공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공교육

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불평등의 완화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주로 공교육비의 증가와 사교육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교육비지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세대로의 교육수준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응답자 본인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을 통한 다세대 간의 교육수준의 이동의 크기를 정확하게 논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강건성 분석

지금까지 2012년도 여성가족패널의 30, 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어머니(G1)의 교육수준이 응답자(G2)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과 응답자의 자녀(G3)의 교육비 지출로 설명되는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열의 및 G3세대에의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G1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G2의 교육수준의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LFP와 직업선택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와 관련된 변수에는 부정적이거나 그다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딸의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과 대학이상인 경우에 출산율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3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경우 G1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로그 공교육비와 전체 소비 중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교육비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2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이것이 과연 보편적인 결과인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결과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강건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먼저 분석대상을 전연령대로 확대하여 분석을 해보았다. 2012년도 여성가족패널의 기혼여성 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갖춘 총 샘플수는 4,113개였다. 샘플의 여성의 연령대는 24세에서 69세이다. 분석의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있다. 모든 연령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딸의 교육연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FP의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딸의 경제활동 참여는 감소하는 방향

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출산한 아이수과 기대자녀수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3의 교육비지출의 경우 Panel A를 통해 공교육비의 경우는 대졸이상에서 증가하였으며 사교육비의 경우는 고졸과 전문대졸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 40대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교육비 지출금액에 로그를 취한 경우에도 G3의 공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G1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경우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방향성은 감소하는 방향이었다. 공교육비대비 사교육비의 비중 또한 모든 교육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대졸이상보다 전문대졸에서의 계수값의 가장 크게 감소하여 교

[표 6]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변수 및 손자 손녀의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Klowf 2012, 전연령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VARIABLES	딸 교육연수	LFP	직장생활 시작연령	출산한 자녀수	기대 자녀수	가계소비 중 한아이당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한아이당 교육비 지출금액			사교육비/공교육비
						공교육	사교육	전체	공교육	사교육	전체	
Panel A : 어머니 단계별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179	-0.028	1.016***	-0.067	-0.060	0.075	-0.147***	-0.072	0.223***	-0.080	-0.005	-2.065**
	(0.130)	(0.170)	(0.322)	(0.046)	(0.042)	(0.049)	(0.057)	(0.070)	(0.071)	(0.058)	(0.049)	(0.927)
전문대졸	0.157	-0.390	1.746	-0.506**	-0.616***	0.216	-0.467*	-0.251	1.207***	0.007	0.500*	-9.329*
	(0.500)	(0.706)	(1.372)	(0.207)	(0.188)	(0.245)	(0.281)	(0.345)	(0.409)	(0.333)	(0.297)	(5.375)
대졸이상	0.022	-0.464	0.516	-0.246**	-0.202*	0.281**	-0.106	0.175	0.507***	-0.094	0.187	-5.373**
	(0.317)	(0.381)	(0.826)	(0.115)	(0.104)	(0.119)	(0.137)	(0.169)	(0.161)	(0.141)	(0.119)	(2.117)
Observations	4,113	3,329	3,625	3,333	3,333	2,696	2,696	2,696	1,856	1,950	2,305	1,856
Panel B : 어머니 교육연수												
어머니 교육연수	0.046***	-0.009	0.074*	-0.004	-0.003	0.006	-0.007	-0.001	0.026***	-0.007	0.007	-0.109
	(0.015)	(0.019)	(0.039)	(0.006)	(0.005)	(0.006)	(0.007)	(0.009)	(0.008)	(0.008)	(0.006)	(0.107)
Observations	4,113	3,353	3,625	3,333	3,333	2,696	2,696	2,696	1,856	1,950	2,305	1,856

주: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1) 딸의 교육연수, (2) 2012년도 경제활동 참여율, (3)사회생활을 시작한 연령, (4) 실제 출산한 아이수, (5)계획하고 있는 총 아이수, (6)~(8)은 가계소비중 한아이당의 교육비 지출 비중(전체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의 비중의 순서), (9)~(11)은 한아이당의 교육비 지출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환산하였음. (12)는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 Panel A는 주요 설명변수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Panel B에서는 단계별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함.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10%, 5%,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육수준과의 관계가 비선형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령층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 경우에도 30,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은 본 논문의 결과가 2012년의 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므로 다른 해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표 7]은 여성가족패널의 가장 초기 데이터인 2007년의 30, 40대 기혼 여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기적인 차이로 인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총 샘플수는 2,091개이다. 먼저 어머니의 교육연수의 증가는 딸의 교육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딸의 교육연수를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는 2012년도의 결과와 유사하게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도에는 대졸이상에

[표 7]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변수 및 손자 손녀의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Klowf 2007, 30~40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VARIABLES	딸 교육연수	LFP	직장생활 시작 연령	출산한 아이수	기대 자녀수	가계소비 중 한아이당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한아이당 교육비 지출금액			사교육비/공교육비
						공교육	사교육	전체	공교육	사교육	전체	
Panel A : 어머니 단계별 교육수준												(기준: 중졸이하)
고졸	0.168	-0.153	0.342	-0.052	-0.046	0.113**	0.099	0.213**	0.307***	0.101	0.118**	-0.195
	(0.145)	(0.200)	(0.266)	(0.050)	(0.050)	(0.057)	(0.076)	(0.083)	(0.106)	(0.064)	(0.055)	(1.219)
전문대졸	0.660	-2.002*	0.497	-0.258	-0.251	0.295	0.053	0.348	1.319**	0.296	0.359*	-10.185*
	(0.552)	(1.130)	(0.959)	(0.185)	(0.186)	(0.196)	(0.263)	(0.286)	(0.521)	(0.226)	(0.203)	(5.963)
대졸이상	0.592*	0.295	-0.448	-0.217*	-0.213*	0.256*	0.170	0.426**	0.262	0.267*	0.295**	-0.040
	(0.346)	(0.521)	(0.640)	(0.120)	(0.120)	(0.142)	(0.190)	(0.207)	(0.272)	(0.152)	(0.135)	(3.114)
Observations	2,091	1,926	1,922	1,927	1,927	1,717	1,717	1,717	964	1,415	1,550	964
Panel B : 어머니 교육연수												
어머니 교육연수	0.040**	-0.021	0.082**	0.004	0.005	0.013*	0.009	0.022**	0.025**	0.015*	0.023***	-0.079
	(0.019)	(0.026)	(0.0345)	(0.007)	(0.007)	(0.007)	(0.010)	(0.011)	(0.013)	(0.008)	(0.007)	(0.145)
Observations	2,091	1,936	1,922	1,927	1,927	1,717	1,717	1,717	964	1,415	1,550	964

주: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1) 딸의 교육연수, (2) 2012년도 경제활동 참여율, (3) 사회생활을 시작한 연령, (4) 실제 출산한 아이수, (5) 계획하고 있는 총 자녀수, (6)~(8)은 가계소비 중 한아이당의 교육비 지출 비중(공교육비, 사교육비, 전체교육비의 비중의 순서), (9)~(11)은 한아이당의 교육비 지출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환산하였음. (12)는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 Panel A는 주요 설명변수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Panel B에서는 단계별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함.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서 유의미하면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의 경우는 전문대졸의 경우에 가장 유의미하고 가장 크게 감소하며 대졸이상인 경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의 경우는 비록 어머니의 교육수준별로 보았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교육연수의 증가에 따라서는 유의미하게 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딸의 사회생활 시작 연령은 늦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한 아이수와 기대자녀수 모두 전문대졸에서는 비록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에 미치는 영향은 2012년도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3에 대한 교육비의 지출과 관련하여서 가계소비지출 중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의 비중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교육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로그 교육비의 경우는 고졸과 전문대졸에서는 공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에서는 사교육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2012년과 다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교육비의 증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은 본 분석과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인 경우에 손자손녀의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도의 다른 연령대로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다른 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는 딸의 교육수준의 증가시키며 외손자, 손녀의 교육비 지출, 그 중에서도 공교육비에 대한 지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딸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며, 직장생활연령을 늦추며, 더 적은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교육수준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의 이동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는 딸의 교육수준의 증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간의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유사한 남녀 간에 가정을 이루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2세대 간의 교육수준의 대물림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의 경제활동관련 변수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딸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딸이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에는 유의하지 않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 현재 30, 40대의 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LFP)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부모님 세대에 학력이 높은 부모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비경활인구화는 딸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비록 미혼일 때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딸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결혼 후에는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전업주부로써 자녀에 교육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세대에서도 assortative mating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비슷한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의 경우는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딸이 화이트칼라 직종(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딸 본인의 교육연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확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딸의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의 안정적인 직업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처음으로 직장을 갖는 연령은 어머니의 교육연수의 증가가 딸의 교육수준을 증가시켜 이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대졸이상에서 딸의 출산하는 자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경우와 2007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자녀의 출산율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3세대에 걸친 교육수준의 이전을 보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응답자의 자녀(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교육비가 증가하고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하는 경우에 공교육비 지출비중과 지출금액이 커지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어머니의 세대에서는 사교육이 성행하지 않아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공교육의 가치를 크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경제적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득면에서 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부재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의 경우 교육의 평등성을 강화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가정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장수명・한치록, 2011). 그러므로 공교육비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불평등의 완화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는 3세대간의 교육수준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교육수준의 이전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답자 본인의 교육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3세대의 최종적인 교육수준 및 학업성취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을 통한 3세대에 걸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이동성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세대의 교육수준 및 경제성과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nel A의 어머니의 단계별 교육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딸의 교육연수, 노동성과, 손자손녀의 교육비지출의 대부분에 있어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보다 전문대졸에서 더 유의하고 계수의 크기도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을 통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해보고자 했던 본 논문의 한계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교육수준'의 세대 간 이동성을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의 역할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쌍둥이연구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유전적인 요인을 통제한 Behrman and Mark R. Rosenweig(2002)와 Bruce

Sacerdote(2007)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은 통제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순수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이전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인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요인은 본 논문에서 통제한 변수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통제하는 변수를 추가시켜가며 주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7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 상황에서 학력의 세습을 통한 사회경제적지위의 이동성을 보기위해서는 단순히 전문대 졸, 대학진학이상이 아닌 보다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에 취업하였는지 등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본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에 이러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위에 언급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국내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을 고려할 때에 어머니의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교육수준의 이동성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교 자녀의 학업성취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자녀의 최종적인 학업수준과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 더 나아가 3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어머니의 영향력은 향후 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 간 이동성에 미치는 여성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안종범・전승훈,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제1권 제 1호, 2008, pp.119-142

방하남・김기헌,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 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연구원, 2000, pp.1-30

방하남・김기헌,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7권 제 4호, 2003, pp.31-65

조우현, 「아버지의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 2호, 2004, pp.67-89

남기곤,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 국제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 17권 제 1호, 2008 , pp.61-92

최필선・민인식,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 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 3호, 2015

김현주・이병훈,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제 30권 제 1호, 2007, pp.125-148

여유진,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 28권 제2호, 2008, pp.53-80.

장수명・한치록,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제 5장 교육정책과 계층 이동」,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p.103-151.

김대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노동경제논집』, 제 31권 제 2호,

2008, pp.73-102

김봉근・석재은・현은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노동경제논집』, 제 35권 제 2호, 2012, pp.25-41

김위정・김양분,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제47집 제4호, 2013, pp. 263-302

우명숙・김지하,「학교자원과 학교 교육성과의 관계 분석: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를 중심으로」,『교육재정경제연구』, 제 22권 제 1호, 2013, pp.139-162

윤경희, 「학업성취결정모형의 종단적 분석」,『교육이론과 실천』재 11권 제 1호, 2001, pp.137-162

이현주, 「여중생의 진로태도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모녀의 심리・배경요인과 관계요인을 중심으로」,『교육학연구』, 제 37권 제 3호, pp.279-321

김종엽,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경제와 사회』, 제 59호

통계청,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Gary solon,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3), 1992, pp.393-408

Behrman and Mark R. Rosenweig, “Does Increasing Women's Schooling Raise the Schooling of the Next Gener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2002, pp. 323-334

Bruce Sacerdote, “How Large Are the Effects from Changes in Family Environment? A Study of KoreanAmerican Adopte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1), 2007, pp. 119-157

Kristin F. Butcher and Anne Case, "The Effect of Sibling Sex composition on Women's Education and Earning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3), 1994, pp. 531-563

Schmidt, Peter and R. P. Straus. "The Prediction of Occupation Using Multiple Logit Model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6 (2) , 1975, pp. 471-486.

Hedges, Laine and Greenwald, "The Effect of School Resources on Student Achie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rch*, 66(3), 1996, pp. 361-396

Fischer, C. S., M. Hount, M. S. Jankowski, S. R. Lucas, A. Swidler & K. Voss., *Inequality by Design: Cracking the Bell Curve My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Blau, P. & Duncan, D.C.,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ley, 1967

Abstract

The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an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women's education

Won, Hyejin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rovement of women's social economic status, because of rising education levels and activating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has a high possibility to affect their children's education levels and economic outcomes. However, in Korea, there was little research of the social mobility regarding women's rol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mother's education levels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levels and economic outcomes. Moreover, I analyze the transition of education levels not only between two generations but also among three generations via women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first generation's education levels on the educational expenditure to the third generation. There are thre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when mothers' education levels are higher than college graduation, the transmission of mothers' education level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is apparent. Second, the log public expenditures for education and the ratio of the public education expenditures to the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to the third generation increase at all education levels of mothers. Especially, the increase of mothers's schooling may play a role to reduce the inequality through education considering that the ratio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to public education expenses markedly decreases. Moreover, raising mothers' education levels has a limited or negative effect on daughters' economic outcomes directly, and there is only indirect influence by daughters' own education levels.

Keywords : social mobility, education level, mothers,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economic outcomes, education expenditures.
Student Number : 2014-22296